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7.(금)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27일(금)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박란희**	044-300-7176

[2027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어울링 500대 교체 예산안 환영… 대량 구매 효과 높이고 관리체계 개선해야"

– 결산심사·행감서 어울링 교체 예산 확충 요구 및 부품 고장 민원 증가 지적, 노후 자전거 교체, 물량 확대와 함께 실질적 이용 편의 증진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11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 중 세종시 교통국 대중교통과 본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며 공영자전거 '어울링' 500대 구입비 5억원 편성안을 환영하고,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과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과 소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공영자전거 운영' 예산을 점검하며, 노후 자전거 교체가 구매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용 불편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복된 소량 구매 개선 요구…500대 구매 규모에 맞는 단가 절감 주문

박 의원은 그동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어울링의 적기 교체와 구매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90대·98대 등 소량 구매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구매 규모와 발주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2018년형 등 노후 어울링 교체를 위한 자전거 500대 구입비 5억원이 반영됐다. 박 의원은 “노후 자전거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된 것은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의미 있는 변화”라며 “예산 산출단가인 대당 100만원을 그대로 집행 기준으로 삼기보다, 구매 규모에 맞는 가격 협의와 경쟁성 확보를 통해 예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내구성, 부품 공급 여건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구매비를 절감하고, 절감가능한 재원은 관련 예산 절차를 거쳐 추가 교체와 거치대 정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부품 고장 민원 증가…현장 정비 데이터를 구매·시설관리에 반영해야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어울링 전체 민원은 2024년 7만8,443건에서 2025년 5만4,164건으로 감소했지만, 부품 고장 민원은 같은 기간 564건에서 7,913건으로 약 14배 늘었다.

또한 어울링 거치대·대여소 730개소 중 80개소에 시급한 교체·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7년 거치대 설치·정비 예산은 40개소를 기준으로 4,000만원이 편성돼 있어, 파손시설 정비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의견이다.

박 의원은 “현재 자전거 운영·수리·재배치는 교통공사가 담당하고, 구매와 거치대 정비는 시가 맡고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고장 원인과 정비 수요가 구매 규격과 시설 정비계획에 신속하게 반영

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에 축적된 고장·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매 규격 검토와 검수·배치 ▲부품 호환성과 공급 안정성 확보 ▲거치대 설치·정비 ▲자전거 유지보수 업무를 연계하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어울링은 연간 이용 건수가 260만 건을 넘어선 세종시민의 필수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500대의 새 자전거가 도입되는 2027년이 단순한 물량 교체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